

#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이윤신\*, 박성희\*\*, 김종경\*\*\*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경민대학교 간호과\*\*,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Yoon Shin Lee(lucky0507@naver.com)\*, Sung Hee Park(angelshee@hanmail.net)\*\*,  
Jong Kyung Kim(jongkimk@dankook.ac.kr)\*\*\*

###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을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개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7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3월 2일에서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만족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들 변수는 대학생활 만족에 대한 경로를 2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고 셀프리더십,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과과정의 실시가 요구된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셀프리더십 |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 | 대학생활 만족 |

### Abstract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s a major barrier to campus life and nursing education is needed the programs for considering student's stres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relation among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We conducted a survey of 375 students in 4 nursing college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sup>nd</sup> to 31<sup>st</sup>. 2014.

The study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and significant direct effects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these variables explained 26.8%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refore, self-leadership of students can improv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furthermore, improve ultimately colleg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o improve college life satisfaction,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nd education programs for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 reflected in curriculum.

■ keyword : | Student Nurse | Self-Leadership | Self-Efficacy | Interpersonal Relation | College Life Satisfaction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간호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습득에 목표를 두고 있다[1]. 즉, 간호학생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함으로써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학업적 스트레스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학우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간호학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이라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노출을 일찍 경험하게 되어 대학생활 적응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2]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수행 예측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 만족은 현재 속한 대학에서의 학업적, 생활적, 행정적, 개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충족정도로서 같은 대학생활이라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만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학생활 만족은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주며, 교수와 학교에 신뢰, 자신의 장래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3][4].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학습상황에서의 동기요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며 그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되며[5] 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동력이 되며[6] 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을 통하여 학습자의 미래학업과정과 성취도를 예측가능하다[7]. 그러므로 학교생활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자기 효능감은 학교생활에 대

한 적응을 측정함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Christensson 등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경우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적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8]. 또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대학생이 나아가야 하는 사회로의 진입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로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자율성을 강조되고, 자기관리와 내적동기부여'로 정의하며[9]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을 정하여 틀에 맞추어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주변의 단서들을 활용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등 자율성과 열정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였다[10]. 또한 셀프리더십은 취업전력 수준과 학업에 흥미를 더하여 성과를 나타내게 하며, 학과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자신에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설계한 목표를 향하여 자율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등 개인적 성장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학생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계의 경로나 총체적인 인과관계 모형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서 각 변수들과 함께 측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 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을 설명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구축한다.
- 4) 가설적 연구모형과 실제 자료간의 적합도 검증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을 설명하는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셀프리더십

1980년대 조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구성원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Manz와 Sims[11]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리더십 개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더십인 셀프리더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기영향력(self-influence)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을 통틀어 말하며 여기서 셀프(self)의 의미는 '자아'의 개념으로 인간 내부의 기본적인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간호사는 환자를 대하면서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환자를 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간호사 개개인이 그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셀프리더십을 지녀야 한다[12].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도 셀프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변수 요인으로 원효진과 조성현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호 업무성과, 조직시민행동, 직무 스트레스, 혁신행동, 간호 정보역량으로 보았으며 국내 간호 관련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셀프리더십 도구 역시 Manz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이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13].

### 2. 자기효능감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최근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가 자기효능감 이론(self-efficacy theory)이다.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4]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은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이므로 개인의 성취방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능동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볼 수 있다[15]. 개인적 성장의 개념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다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6] 박선영[17]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 모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3.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타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는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련된 심리적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8].

대인관계는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선·후배, 동기, 교수와의 관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인관계는 교육과정이 더욱 엄격하고,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임상실습, 그리고 국가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는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9].

### 4. 대학생활만족도

#### 4.1 대학생활만족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연구변수들은 박현주와 장인순의 연구[2]에서는 '전공 교실 수업', '공부·일', '학교생활'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전공 외 수업', '개인적·사회적 환경', '임상경험', '대학 환경', '인간관계(이성)', '학내생활', '인간관계(친

구), ‘인간관계(가정)’, ‘자기 자신’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향숙의 연구[20]에서도 친구관계에서는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오미정[21]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주로 유발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임상실습에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상황, 대인 관계, 지식부족, 이론과 현실의 차이, 단순하고 기능적인 학생업무, 역할의 애매성, 임상실습이라는 상황 자체를 들고 있다.

#### 4.2 간호임상실습 직무특성

간호교육 과정은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배운 간호이론과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임상실무 적용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간호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 만족도 감소는 물론 인내력 감소와 학습능력 저하 등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2].

대학생활 자체만으로도 많은 과업을 달성해야 할 학생들에게 임상 실습은 긍정적인지 못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학생활 부적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상자들의 건강한 역할모델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가 되는데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23].

### 5.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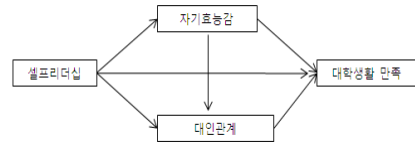


그림 1.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간의 경로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 연구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2.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셀프리더십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5.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6. 대인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로분석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3개 도시 4개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 대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 3, 4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총 375 명으로 G\*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크기 효과 .25, 검정력 .95 수준의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 280명을 초과하였다.

편의추출에 의하여 선정된 간호대학의 설문조사를 허락을 받고 2014년 3월 2일에서 3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설문조사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Manz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SLQ(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24] 이정선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용된 총 23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25]. 이정선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심감,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심감은 자신이 할 수 있다거나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다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잘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는 효능기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섭이 사용한 18개 문항[26]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정진섭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3.2 대인관계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lein과 Guerney의 인관계 변화 척도[27]를 한국 실정에 맞게 문선모가 빈안한 20

개 문항[28]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다.

### 3.4 대학생활 만족

대학생활 만족은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대학 전반에 대한 애착이나 호감이다.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이나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의 대학생생활 만족 연구[4]에 이용한 설문지 12개 문항 중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으며 전반적 만족, 대학생활 만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정윤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2개 문항의 신뢰도는 .78이었고 1번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Cronbach's  $\alpha$ 는 .81로 높아져 1번 문항을 제거한 11개 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각 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s  $\alpha$ 로 측정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4개 개념의 차이 유무를 보기위하여 ANOVA와 사후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93.3%, 남학생이 6.7%였으며 학년은 4학년이 42.4%로 가장 많았다. 82.1%가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무응답도

1.1% 였다.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학생이 57.6%였으며 용돈 충당에 대한 방법에 관해서는 본인이 12.3%, 부모님 60.0%, 본인과 부모님이 27.7%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75)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5(6.7)
	여자	350(93.3)
학년	2학년	117(31.2)
	3학년	99(26.4)
	4학년	159(42.4)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있다	63(16.8)
	없다	308(82.1)
	무응답	4(1.1)
가족과 동거여부	네	216(57.6)
	아니요	159(42.4)
용돈 충당 방법	본인	46(12.3)
	부모님	225(60.0)
	본인과 부모님	104(27.7)

## 2. 대상자별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 2.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의 평균값은 성별별로 남자 3.40점, 여자 3.35점, 학년별로 2학년 3.298점, 3학년 3.43점, 4학년 3.36점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평균값

은 ‘있다’가 3.45점, ‘없다’가 3.34점이었으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32점, 동거하지 않는 경우 3.41점으로, 용돈충당 방법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본인이 3.47점, 부모의 경우 3.34점, 본인과 부모님 모두 충당할 경우의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34점으로 나타났다.

### 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의 평균값은 성별별로 남자 3.52점, 여자 3.45점, 학년별로 2학년 3.45점, 3학년 3.45점, 4학년 3.47점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은 ‘있다’가 3.55점, ‘없다’가 3.44점이었으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6점, 동거하지 않는 경우 3.44점으로, 용돈충당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본인이 3.40점, 부모의 경우 3.43점, 본인과 부모님 모두 충당할 경우의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 2.3 대인관계

간호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의 평균값은 성별별로 남자 3.86점, 여자 3.75점, 학년별로 2학년 3.74점, 3학년 3.77점, 4학년 3.76점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프로그램

표 2. 학교생활 만족의 평균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N=375)

변수	구분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Mean	U(p)	Mean	U(p)	Mean	U(p)	Mean	U(p)
성별	남자	3.40	3991.500	3.52	3857.000	3.86	3982.000	3.59	4123.500
	여자	3.350		(0.46)		3.45		(0.32)	
학년	2학년	3.29	2.510	3.43	0.965	3.74	1.484	3.66	14.040*
	3학년	3.43		3.45		3.77		3.72	
	4학년	3.36		3.47		3.76		3.45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	있다	3.45	8970.500	3.55	8396.500	3.91	7481.000*	3.68	8667.000
	없다	3.34		(0.35)		3.44		(0.092)	
가족 동거 여부	예	3.32	15957.000	3.46	16429.500	3.75	16783.500	3.62	16050.000
	아니요	3.413		(0.24)		3.44		(0.473)	
용돈 충당 방법	본인	3.47	3.436	3.40	1.276	3.82	2.926	3.78	7.639*
	부모님	3.34		3.43		3.72		3.56	
	둘다	3.34		3.53		3.79		3.575	

\* : p - value (0.05)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인관계의 평균값은 3.91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3.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대인관계의 평균점수는 3.75점, 동거하지 않는 경우 3.76점으로, 용돈 충당방법에 따른 대인관계의 평균은 본인이 3.82, 부모님의 경우 3.72점, 본인과 부모님 모두일 경우의 평균은 3.79점으로 나타났다[표 2].

2.4 대학생활 만족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의 평균값은 성별별로 남자 3.59점, 여자 3.59점, 학년별로 2학년 3.66점, 3학년 3.72점, 4학년 3.45점으로 4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의 평균값은 ‘있다’가 3.68점, ‘없다’가 3.56점이었으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대학생활 만족의 평균은 3.62점,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3.55점, 용돈 충당방법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의 평균점수는 본인일 경우 3.78점, 부모의 경우 3.56점, 본인과 부모님 모두일 경우 3.57점으로 본인이 용돈을 충당하는 경우에서 대학생활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3. 셀프리더십, 대학생활 만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과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셀프리더십 정도는 대학생활 만족( $r=.50, p<0.01$ ), 자기효능감( $r=.44, p<0.01$ ), 대인관계( $r=.40, p<0.01$ )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정도와 대학생활 만족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 $r=.24, p<0.01$ )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 $r=.30, p<0.01$ ),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 $r=.51, p<0.01$ )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표 3].

표 3.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간의 상관계수

(N=375)

	셀프리더십	대학생활 만족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셀프리더십	1			
대학생활 만족	0.50**	1		
자기효능감	0.44**	0.24**	1	
대인관계	0.40**	0.30**	0.51**	1

\*\* :  $p$ -value <0.01      \* :  $p$ -value <0.05

4.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일반적 특성과 각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통계량은 16.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1$ ) 즉, 성별, 학년, 리더십 프로그램, 가족 동거 여부, 용돈 충당 방법, 셀프리더십,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만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6%로 나왔다. 또한 각각의 t값을 보면, 학년과 셀프리더십,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에 유의하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표 4].

5.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의 경로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연구의 가설모형은 연구의 개념틀에 맞추어 간호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으로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설정한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추정치를 산정하였다. 표준화경로 추정치의 값을 중심으로 경로도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으며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각각에 대한 경로의

표 4. 일반적 특성과 문항별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eta$	Sta $\beta$	t or f	P	VIF
성별	전체			0.76	0.383	
	남	0	-	-	-	-
	여	0.077	0.039	0.87	0.383	1.039
	전체			9.60	0.000	
학년	2학년	0.178	0.165	3.39	0.001	1.255
	3학년	0.211	0.186	3.88	0.000	1.209
	4학년	0	-	-	-	-
리더십프로그램	전체			0.13	0.716	
	예	0	-	-	-	-
	아니요	-0.033	-0.025	-0.57	0.570	1.056
	전체			1.73	0.189	
가족동거여부	예	0	-	-	-	-
	아니요	-0.058	-0.058	-1.28	0.200	1.077
운동총량	전체			1.60	0.203	
	본인	0	-	-	-	-
	부모님	-0.061	-0.060	-0.86	0.391	2.610
	부모님과 본인	-0.098	-0.088	-1.3	0.193	2.427
셀프리더십평균		0.506	0.466	9.24	0.000	1.353
자기효능감평균		-0.004	-0.004	-0.07	0.945	1.535
대인관계평균		0.143	0.119	2.29	0.023	1.447

R\_square:0.316 Adj R-square:0.297 F-value : 16.83 P-value : 0.001 D-W : 1.897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경로추정치에서 대학생할 만족에 셀프리더십( $\beta = .50$ ,  $p < .05$ ), 대인관계( $\beta = .16$ ,  $p < .05$ )가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로는 셀프리더십( $\beta = .43$ ,  $p < .05$ ), 이었고 대인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로는 셀프리더십( $\beta = .20$ ,  $p < .05$ )과 자기효능감( $\beta = .38$ ,  $p < .05$ )이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이들 중 대학생활 만족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셀프리더십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순서이었다, 이들 변수는 대학생활 만족을 26.8% 설명 하였다. 이 중 대학생활 만족에 유의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셀프리더십, 대인관계였으며 셀프리더십은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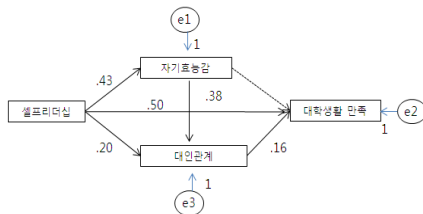


그림 2.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간의 경로

표 5.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간의 경로에 대한 직·간접 효과

(N=375)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직접효과 (p)	간접효과 (p)	총효과(p)	SMC
대학 생활 만족	셀프 리더십	0.50* (0.009)	0.04* (0.099)	0.55* (0.014)	0.268
	자기 효능감	-0.03 (0.707)	0.06* (0.032)	0.03 (0.512)	
	대인 관계	0.16* (0.032)		0.16* (0.032)	
자기 효능감	셀프 리더십	0.43* (0.008)		0.43* (0.008)	0.192
대인 관계	셀프 리더십	0.20* (0.026)	0.17* (0.002)	0.36* (0.016)	0.268
	자기 효능감	0.38* (0.011)		0.38* (0.011)	

SMC= Squred multiple correlations. \* $p < .05$

## 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 기틀로 구



성하였고 375명의 간호 대학생들로 부터 수집한 자료로 각 변수들의 경로와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변수들이 대학생활만족을 2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만이 직접적인 효과를 주며 19.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미의 연구[29]와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 모두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만족에 대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양남영과 문선영의 연구[31]와도 같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경로분석을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에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호 대학생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셀프리더십을 함양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측면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봉은주의 연구[32]에서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제시한 바 있으며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 경험으로 연구한 결과 ‘학업부담감 극복’, ‘취업부담감 극복’, ‘다양한 지지자원 확보’, ‘다양한 교과외 활동참여’ 및 ‘질 높은 실습교육’이라고 조사한 연구도 괄목할 만하다[3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유무, 가족 동거 여부, 용돈충당 방법에 따른 각 개념들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인관계에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학년과 용돈충당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의 연구[34]나 한영석, 김명소의 연구[35]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도 학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측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학년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이 가장 높고 4학년 학생의 대학생활 만족이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4학년이 되어 국가고시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간호학과만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3학년은 임상실습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만족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학년에 따른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년별로 적합한 교과목의 배정이나 실습이 이루어지게 하며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 및 평가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년 별 수준에 적합한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각 대학에서 글로벌 역량강화나 사회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만의 대학생활의 만족을 저해시키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중재가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어[36] 건강한 간호인 양성의 기초인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필요한 간호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관련 개선방안이 제공되고 간호대학의 학교별, 학년별 특성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

계 및 대학생활 만족에 개인적 배경요인 (성별, 학년별,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 가족과의 동거여부, 용돈충당방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는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만족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요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만족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소간의 관련성을 잘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요소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결론에 따라 간호 대학생들이 원만한 대학생활 만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만족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밝혀냈으나 좀 더 다양한 변인별 차이를 확인 할 수 가 없었다.

따라서 각 배경 변인별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 다루지 않은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조절 및 매개 효과를 지닌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나듯이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가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의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 상담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적용을 수행하여야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만족 및 적응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간호 대학생들의 개인내적 능력 즉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심리적 안정감과 대처방식을 증강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J. Liaschenko and E. Peter,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Vol.46, No.5, pp.488-495, 2004
- [2]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 [3] 한은성, *대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 이정윤,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5]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 [6] 김아영, 박인영,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교육학 연구*, 제39권, 제1호, pp.95-123, 2001.
- [7] 하정효, *ICT 활용 수업 유형이 영어학습 태도, 학업성취도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8] A. Christensson, M. Vaez, P. W. Dickman, and B. Runeson, "Self-reported depression in first-year nursing students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and educational factor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Swede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6, No.4, pp.299-310, 2011.
- [9] 서문경애,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개인성과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1호, pp.45-58, 2005.
- [10] C. C. Manz,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11] C. C. Manz and H. P. Sims,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5, pp.361-367, 1980.
- [12] 대한간호협회, "간호리더십의 힘", 제45권, pp.8-21, 2006.
- [13] 원효진, 조성현,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문헌 분석", *대한간호행정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82-393, 2013.
- [1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 Rev*, Vol.84, No.2, pp.191-215, 1977.
- [15] S. V. Owen and R. D. Froman,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iency Scale,"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1988.
- [16] 이은우,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7] 박선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 [18] 최명구, 신은영, "청소년의 자아구조와 대인관계 문제와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4호, pp.1-16, 2003.
- [19]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02.
- [20] 조향숙, "일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 제12권, 제1호, pp.3-14, 2009.
- [21] 오미정,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유형", *아동간호학회지*, 제6권, 제3호, pp.423-436, 2001.
- [22] 원종순, 김금순, 김경희, 김원옥, 유계희, 조현숙, 정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발마사지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1-16, 2000.
- [23] 박정원, 하나선,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27-35, 2003.
- [24]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 [25] 이정선,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6] 정진섭, *정보통신윤리 교과목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상보적 교수방법의 적용*,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7] A. Schlein and B. G. Guernsey, *Relationship enhancement*, San Francisco, CA: Josey-Bass, 1971.
- [28]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 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9권, pp.195-204, 1980.
- [29] 박현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30] 석소현, 신동수, 김귀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과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475-481, 2006.
- [31]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 [32] 봉은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94-402, 2013.
- [33] 최지혜, 박미정, "일 지역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339-349, 2013.
- [34]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29-237, 2006.
- [35] 한영석, 김명소, "셀프리더십의 성별차이 및 대

학생생활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15-233, 2010.

[36] 김종경,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련문헌분석”, 간호행정학회지, 제20권, 제1호, pp.47-59, 2014.

### 저 자 소 개

이 윤 신(Yoon Shin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외래강사

<관심분야> : 인적자원관리, 간호생산성, 성인간호

박 성 희(Sung Hee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민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인적자원관리, 성인간호

김 중 경(Jong Kyung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결과, 리더십, 간호 조직관리, 간호 인적자원관리